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3호 [루체 제23460호] 주제100 (2011)년 5월 23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지구를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자

현지에서 착공식 진행

【평양 5월 22일 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옹대한 수도건설구장에 따라 만수대지구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건설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지구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기념비적 건축물을 홀륭히 일떠세우고 주변의 공원화가 실현되며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판으로 일관된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더 잘 꾸리는데서 희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져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만수대지구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세기를 주름잡으며 나아가는 신군조선의 억센 기상과 영웅적 기개를 높이 떨쳐갈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지구를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자들의 착공식이 2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착공식 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착공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착공식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민수대지구 살림집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하자!》 등의 구호와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최영립동지, 김영춘동지와 전화철, 두도철내각부총리들, 성, 중앙기관, 평양시 일군들과 수단명의 건설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착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내각총리 최영립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민인이 당의 전투적 호소따라 인민생활향상파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고 있는 경적 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지구를 홀륭히 꾸리기 위한 건설을 착공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가장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 러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 주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哩며 대한 응대한 구상을 펼쳐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만수대지구를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자들의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김성남 쪽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수도의 곳곳에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을 홀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었으며 창광거리, 광복거리, 살림집들을 비롯한 대건설작전들을 펼쳐나가면서 기념비적 창조물을 홀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전두에서 이끄시여 수도건설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착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내각총리 최영립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민인이 당의 전투적 호소따라 인민생활향상파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고 있는 경적 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만수대지구를 홀륭히 꾸리기 위한 건설을 착공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가장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 러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 주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哩며 대한 응대한 구상을 펼쳐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만 절차실수 있는

웅대하고 장엄한 대건설전투이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만수대지구 건설에拼搏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말려진 건설파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흥공격전에 힘껏갈이 펼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옹장화려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위

용을 과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만수대지구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지를 명심하고 불굴의 정신력을 풍족

발사기 세상을 놓아온 새로운 건설 속도를 창조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를

지금으로써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

라난 조선청년의 영웅적 기개를 떨

쳐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만수대지구건설은 혁명적 도덕의

의 희고화신이 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만 절차실수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에게 헌신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절차실수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에게 헌신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에게 헌신하고</p

혹령탄광로적쟁 백영길 줄진 소대는 지난 수십년간 강동지 구단전에서뿐 아니라 석탄공업 성적으로 일 잘하는 소대로 소문났다.

1만 수천m의 굴진을 진행하여 백수십만의 새 탄발을 마련함으로서 석탄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소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자력경쟁, 간부분과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달려온 굴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한 전투원리는 단위…

강동지 구단평원 할기 업소와 탄광의 일군들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문체는 지휘관에게 달려옵니다. 소대장이 언제나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앞제에 빠져 내달리니 소대가 혁신의 힘으로 탄광에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보십시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충실했던 진짜 배기란부, 말로 써가 아니라 이신작칙으로 대오를 이끌어가는 기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 탄전이 자랑하는 굴진소대장 백영길동무와 마주앉았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집민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백영길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제대배당을 흑령탄광에 풀어놓은 제대군인란부였다.

그는 말을 길게 할줄랐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의 나이가 52살이라는 것, 근

지하막장에 울리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령소리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흑령탄광로적쟁 굴진소대장 백영길동무

30년 동안 변함없이 한초소에서 굴진공. 소대장으로 일해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합마와 정대로 발파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어지간히 흐르자 모두가 기진맥진하였습니다. 힘은 이들로 숨이 차서 헐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만은 변함없이 합마를 기운차게 휘두르는것이었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가 어찌하여 굴진공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며 위훈에 불려일으키는것인가. … :: ::

우리는 굴진공 리제삼동무를 만났다.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휴식수첩에 그대로 받아썼다.

«나는 소대장동무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오고 있지만 언제 한번 그가 <나를 따라 앞으로!>하고 말로 웨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로써 어가는 기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 탄전이 자랑하는 굴진소대장 백영길동무와 마주앉았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집민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백영길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제대배당을 흑령탄광에 풀어놓은 제대군인란부였다.

그는 말을 길게 할줄랐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의 나이가 52살이라는 것, 근

소대장이 먼저 합마를 틀어쥐고 암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합마와 정대로 발파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어지간히 흐르자 모두가 기진맥진하였습니다. 힘은 이들로 숨이 차서 헐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만은 변

함없이 합마를 기운차게 휘두르는것이었다. «나를 따라 앞으로!>하고 우

리는 굴진공 리제삼동무를 만났다.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휴식수첩에 그대로 받아썼다.

«나는 소대장동무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오고 있지만 언제

한번 그가 <나를 따라 앞으로!>하고 말로 웨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로써 어가는 기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 탄전이 자랑하는 굴진소대장 백영길동무와 마주앉았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집민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백영길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제대배당을 흑령탄광에 풀어놓은 제대군인란부였다.

그는 말을 길게 할줄랐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의 나이가 52살이라는 것, 근

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소대장동무는 가슴속에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창원을 이대에 소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복구전투가 끝났지만 그는 좀처럼 자리 뜨지 않고 위험

개소가 더 없는가, 동발나루가 기울어진데는 없는가를 세세히 살피며 또 한교대를 막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느라 그는 옹

거기에는 소대장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함께 소대원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막장일에서는 뜻하지 않은 단판들이 가로막아나서 군

남보다 잠을 떠 적게 자고 후식도 덜하고 밥도 적게 먹을 줄 알아야 소대장구설을 바로 제기될 위험한 모퉁이는 그가

드디어 동무들이 봉락을 헤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때까지 수출로 30개의 밀파구멍을 뚫은 우리는 기쁨에 휘둘러 엄싸았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동무가 그 자리에 쓰러지는 힘으로 그 구간을 국북할것을 결심하고 작업조직을 하였습니다. 내가 동발나루를 데려고 하는데 고난의 시기에는 자기의 업적을 알되는 식량도 서슴없이 떠밀어내며 소대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을 일이 생기면 저마다 짐을 떠고 고집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소대장은 <그래도 내가 동발나루보다 막장일을 더 오래 해오겠지? 이런 일에서 소대에 받아들이고 훌륭한 굴진공으로 기비를 비롯하여 소대장동무의 일간됨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품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소대장동무의 집에 찾았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새 집을 몇차례씩이나 새살림을 편 꿈은 굴진공들에게 양보하나니 소대장동무의 집모습은 수십년전 그때

으로 동발나루가 기울어지는 순간에는 주저없이 어깨를 들리고 휴게됩니다. 그는 소대원들을 유행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복구전투가 끝났지만 그는 좀처럼 자리 뜨지 않고 위험

개소가 더 없는가, 동발나루가 기울어진데는 없는가를 세세히 살피며 또 한교대를 막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느라 그는 옹

거기에는 소대장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함께 소대원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막장일에서는 뜻하지 않은 단판들이 가로막아나서 군

남보다 잠을 떠 적게 자고 후식도 덜하고 밥도 적게 먹을 줄 알아야 소대장구설을 바로 제기될 위험한 모퉁이는 그가

드디어 동무들이 봉락을 헤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때까지 수출로 30개의 밀파구멍을 뚫은 우리는 기쁨에 휘둘러 엄싸았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동무가 그 자리에 쓰러지는 힘으로 그 구간을 국북할것을 결심하고 작업조직을 하였습니다. 내가 동발나루를 데려고 하는데 고난의 시기에는 자기의 업적을 알되는 식량도 서슴없이 떠밀어내며 소대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을 일이 생기면 저마다 짐을 떠고 고집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소대장은 <그래도 내가 동발나루보다 막장일을 더 오래 해오겠지? 이런 일에서 소대에 받아들이고 훌륭한 굴진공으로 기비를 비롯하여 소대장동무의 일간됨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품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소대장동무의 집에 찾았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새 집을 몇차례씩이나 새살림을 편 꿈은 굴진공들에게 양보하나니 소대장동무의 집모습은 수십년전 그때

나 지금이나 달라진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소대원들은 우리 집이라고 부르며 제 집처럼 스스럼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복구전투가 끝났지만 그는 좀처럼 자리 뜨지 않고 위험

개소가 더 없는가, 동발나루가 기울어진데는 없는가를 세세히 살피며 또 한교대를 막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느라 그는 옹

거기에는 소대장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함께 소대원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막장일에서는 뜻하지 않은 단판들이 가로막아나서 군

남보다 잠을 떠 적게 자고 후식도 덜하고 밥도 적게 먹을 줄 알아야 소대장구설을 바로 제기될 위험한 모퉁이는 그가

드디어 동무들이 봉락을 헤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때까지 수출로 30개의 밀파구멍을 뚫은 우리는 기쁨에 휘둘러 엄싸았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동무가 그 자리에 쓰러지는 힘으로 그 구간을 국북할것을 결심하고 작업조직을 하였습니다. 내가 동발나루를 데려고 하는데 고난의 시기에는 자기의 업적을 알되는 식량도 서슴없이 떠밀어내며 소대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을 일이 생기면 저마다 짐을 떠고 고집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소대장은 <그래도 내가 동발나루보다 막장일을 더 오래 해오겠지? 이런 일에서 소대에 받아들이고 훌륭한 굴진공으로 기비를 비롯하여 소대장동무의 일간됨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품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소대장동무의 집에 찾았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새 집을 몇차례씩이나 새살림을 편 꿈은 굴진공들에게 양보하나니 소대장동무의 집모습은 수십년전 그때

으로 걸어갔습니다. 개가 가까워질수록 어버지는 더 힘차게 발자욱을 내짚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눈앞에 언제인가 어버지의 수첩갑판에서 보았던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두배, 세배 일해왔는데 오늘 하루쯤 집에 쉬면서 웃는 일은 한정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그녀는 탄광미술에 자리잡은 힘으로 찾았습니다.

조국통일 5개방침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 분별주의 세력의 반통일책동을 파악해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반통일책동이 우심할 수록 통일에 국력량은 더욱 굳게 결속되고 있으며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주의 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로 확대 강화되고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의 합성이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전적으로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지아래 온 민족이 봉우리에서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마련하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통일에 국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키자면 선착점으로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어버이 수령님의 생각은 끝없이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주제 79 (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하였다.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의 절박한 헌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대한 문제. 본령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

왕과 전면개발을 실현함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

켜나갈 때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의 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제 10월 북과

남을 오가며 겨레의 통일분위기를 고

조선민족당을 축구장에 같은 시기

에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 12월

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단합

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겨레는 지금도 어버이 수령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승고한 민족에를 지니

하고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여

1990년대에 민족단합과 조국통일

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드겁게 들이켜보았다.

1990년을 전후하여 평통일기

운은 전민족적범위에서 더욱 양상되고

북과 남, 해외의 3자현대와 연합을

위한 토대가 층성되고 있다. 이에

통합 내외분별주의 세력을 겨레의 통

지향에 도전하여 북침 전쟁연습과 반통

일책동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면서

통일위업의 전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나섰다.

비범한 통찰력으로 내외정세와 겨레의 절박한 요구를 짜颢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

통일운동을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자주

적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었다.

현정 세속에서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

의 비극을 끌어내고자 하는 문제를 발

전시기자면 선착점으로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

위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어버이 수령님의 생각은 끝없이 깊어지

고 되었다.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조국통일위

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주제

79 (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하였다.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의 절박한 헌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대한 문제. 본령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

왕과 전면개발을 실현함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

켜나갈 때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의 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제 10월 북과

남을 오가며 겨레의 통일분위기를 고

조선민족당을 축구장에 같은 시기

에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 12월

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단합

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겨레는 지금도 어버이 수령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승고한 민족에를 지니

하고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여

1990년대에 민족단합과 조국통일

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드겁게 들이켜보았다.

1990년을 전후하여 평통일기

운은 전민족적범위에서 더욱 양상되고

북과 남, 해외의 3자현대와 연합을

위한 토대가 층성되고 있다. 이에

통합 내외분별주의 세력을 겨레의 통

지향에 도전하여 북침 전쟁연습과 반통

일책동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면서

온 겨레는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였다.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의 절박한 헌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대한 문제. 본령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

왕과 전면개발을 실현함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

켜나갈 때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의 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제 10월 북과

남을 오가며 겨레의 통일분위기를 고

조선민족당을 축구장에 같은 시기

에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 12월

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단합

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겨레는 지금도 어버이 수령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승고한 민족에를 지니

하고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여

1990년대에 민족단합과 조국통일

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드겁게 들이켜보았다.

1990년을 전후하여 평통일기

운은 전민족적범위에서 더욱 양상되고

북과 남, 해외의 3자현대와 연합을

위한 토대가 층성되고 있다. 이에

통합 내외분별주의 세력을 겨레의 통

지향에 도전하여 북침 전쟁연습과 반통

일책동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면서

온 겨레는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였다.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의 절박한 헌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대한 문제. 본령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

왕과 전면개발을 실현함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

켜나갈 때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의 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제 10월 북과

남을 오가며 겨레의 통일분위기를 고

조선민족당을 축구장에 같은 시기

에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 12월

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단합

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겨레는 지금도 어버이 수령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승고한 민족에를 지니

하고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여

1990년대에 민족단합과 조국통일

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드겁게 들이켜보았다.

</div

